**다 함께 춤추는 '요사코이' 도카이 대학의 요사코이 동아리 ‘히비키’**

'よさこい(요사코이)'란 よさこい節(요사코이부시(고치 현의 전통 민요))나 ソーラン節(소란부시(홋카이도의 뱃노래)) 같은 민요를 기본으로 하여 단체로 추는 춤을 말하며, 199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고치시의 <요사코이 축제>, 삿포로 시의 <요사코이 소란 축제>, 도쿄 도의 <도쿄 요사코이>를 비롯해, 이른 봄에서 늦가을에 걸쳐 열리는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요사코이 축제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춤추는 단체를 'よさこいチーム(요사코이팀)'이라 하며, 여러 지역과 학교 등에 많은 팀이 결성되어 있다. 각 팀은 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의상이라든지 악기, 음악에도 열과 성을 쏟는다. 도카이 대 학 요사코이 동아리인 'ひびき（響, 히비키）'의 회원이 요사코이의 매력을 이야기한다.

**Q:요사코이란 어떤 춤인가요?**

리카코:저희 동아리가 추는 춤은, 4분 30초의 춤곡에 '요사코이나루코오도리'[고치에 살던 작곡가 다케마사 에이사쿠(武政英策)가 민요 '요사코이부시'를 바탕으로 만든 축제의 주제가]의 멜로디가 들어갈 것, なるこ(鳴子, 나루코(본래 논밭에 매달아 두고 그 소리로 참새를 쫓던 도구에서 유래한 악기))를 들고 춤출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그 밖에 안무나 의상, 음악은 모두 자유롭게 하는 요사코이입니다.

**Q:히비키를 소개해 주세요.**

유스케:2007년에 세워진 대학 공인 동아리로서, 올해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70명 안팎입니다. 작년도에는 40~50명 정도였는데, 올해 1학년이 40명 가까이 들어 와서 늘어났어요. 다른 대학 동아리에는 타 대학 학생들이 들어와 100명이 넘는 곳도 많은 데, 히비키는 회원 모두가 도카이 대학 학생입니다. 여학생이 많아서 남녀 비율이 1:2 정도죠.

**Q:어떤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유스케: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많이 열리고 있어서, 그 중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YOSAKOI 소란 오도리>, <니가타 소오도리>, <하마마쓰 간코 축제>에는 대체로 매년 원정을 가고 있고요. 가까운 곳으로는 <도쿄 요사코이>와 요코하마의 <하마코이>, 히라쓰카의 <쇼난 요사코이 축제> 등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쇼난 요사코이>에서 준대상을 받았고 요코하마와 니가타, 도쿄의 요사코이에서도 상을 받았으며, 올해도 <도쿄 요사코이>에서 입상했습니다.

**Q:요사코이 동아리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유스케:히비키에 먼저 들어온 친구가 연습하는 거 보러 오지 않겠느냐고 해서 와 본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요사코이를 봤어요. 춤은 전혀 못 췄지만, 요사코이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잘 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내는 거라는 점에 끌려서 들어왔습니다.

리카코:저도 동아리 설명회에서 히비키의 공연을 처음 봤어요. 유스케 씨처럼 먼저 들어온 친구가 보러 오라고 했거든요. 와서 보니, 휴식 시간에는 장난치고 있다가도 연습에 들어가니까 다들 진지하게 춤을 추는데,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춤을 잘 추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무를 외우는 것도 더디고 힘들었지만, 점점 빠져들게 됐어요.

**Q:연습은 어느 정도 합니까?**

리카코: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 체육관이나 교내의 널찍한 통로 같은 데서 합니다. 정규 연습은 한 번에 2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인데, 대부분 그 후에도 스스로 남아 연습 하고, 수업이 일찍 끝나면 정규 연습 시간 전에 와서 혼자 연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작품에 '여자 안무'라는, 부채를 사용하는 여성스러운 춤이 있는데, 저도 잘하는 친구 의 동작을 따라 하기도 하고 제 동영상을 찍어 비교하기도 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Q:작품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리카코:스토리가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각각 담당을 정해서 안무반, 의상반, 곡반으로 나누 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안무는 일단 정해졌어도 춤을 추면서 수정해 나가요. 나오는 사람이 바뀌면 대열도 바뀌고, 공연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안무반이 그때그때 수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춤 동작도 다 같지 않고 공연장에 따라 조금씩 바뀌죠.

**Q:요사코이 춤을 추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유스케:춤을 춰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맨 뒤에서라도 함께 춤출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나가 춤을 추는 사이에 점점 재미 있어지면서, 다들 나를 봐 줬으면 싶고, 더 앞 쪽으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춤에 대한 향상심이 생겼습니다.

리카코:저는 원래 뭘 해도 계속하지 못하고 쉽게 싫증을 내는 성격이었는데, 요사코이를 접하면서 이것만큼은 계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으로 춤을 추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먹게 되고요. 올해는 후배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 스스로도 변했다 싶습니다.

**Q:앞으로 1년간 어떤 팀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까?**

유스케:대표로서, 지금까지 연습이나 공연을 하면서 제가 바꾸고 싶었던 부분을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든지 학생 팀답게 신나게 놀아 본다든지 하는 게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더 뜨겁게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 면 사람들 사이에 마찰도 생깁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없애 나가고 싶고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의논하면서 하고 싶어요.

리카코:사람들 사이가 매끄럽지 않으면 춤도 제각각이 돼 버리고, 보고 있으면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저절로 웃음꽃이 피게 되면 좋겠습니다.